이것이 민생치안 현주소

세차례 도둑맞고 용의자 제보해도 묵살

"허튼 짓 하면 차량 부술 것" 협박 당하고

"피해자 전화까지 외면 경찰이 더 미워요"

"접수번호 제20090024××호 사건은 미제 처리했습니다."

지난 7일 J(62)씨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고 허탈감에 빠졌다. 석 달 전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남구 월산동 근로자대기소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왔던 J씨는 같은 사무실을 1년새 세 차례나 턴 도둑을 영원히 잡을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J씨의 사무실에 가장 최근 절도범이 침입한 것은 지난 4월 5일.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절도범은 올해 1월과 지난해 7월에도 이 사무실에 침입, 현금을 털어 유유히 사라졌다.

절도범의 범행 수법은 횟수가 거듭되면서 한층 대범해졌다. 지난해 처음 사무실에 침입했던 절도범은 야간에 사무실 뒷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인건비 150만원을 가져갔다. 이어 올 초에는 사무실 옆 유리창을 뜯어내고 들어와 사무실에 둔 현금 20여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급기야 지난 4월에는 사무실 철제 셔터를 올리고 유리문을 깨부순 뒤 들어와 현금 9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J씨는 특히 자신의 책상 위에 범인이 적어놓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에 담긴 글을 보고 경악했다. 이 종이에는 "네 차량번호 등을 알고 있다. 허튼 짓을 하면 차와 사무실을 깨부술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1년새 3차례나 사무실이 털린데다 협박편지까지 발견되자 J씨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와 문자를 10차례 이상 걸거나 보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사건배당을 알리는 문자가 와 곧바로 전화를 걸었는데도 통화조차 할 수 없었다.

J씨는 "사무실 구조를 잘 아는 자의 소행일 것 같아 제보를 하고, 수사진행 상황이 궁금해 수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형사의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며 "이제는 돈을 가져간 절도범보다 피해자의 전화조차 외면하는 경찰이 더 밉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여러 형사에게 배당됐고,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현장감식을 통해 단서를 확보한 뒤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남부서의 경우 지난 4월 발생한 3억원대 금은방 강도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상가 연쇄절도는 사건 축에도 못 끼어

경찰, 강력사건 밀려 수사 '미적 미적'

훔칠 돈 없으면 해코지 … 상인들 불안

최근 광주시 북구 연제동 모 아파트 상가 과일가게에 누군가 침입,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범인은 상가 뒷문을 도구로 뜯어낸 뒤 침입하는 방법을 썼다. 잠금장치가 비교적 허술한 아파트 상가를 노린 점에서 5개월 전 발생한 인근 상가 절도범의 수법과 비슷하다.

지난 2월 11~25일 사이에 북구 연제동 모 아파트 인근 상가 10여곳에 절도범이 침입, 현금과 물품을 몰래 가져갔었다. 이 상가는 최근 일어난 절도 피해현장과 직선거리로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피해를 본 가게는 제과점·미용실·과일가게 등 점포 내에 현금을 두는 곳이었다. 이 범인은 주로 가게 주인들이 퇴근하는 시간대인 새벽 1시~3시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가 뒷문을 도구로 뜯어내고 내부로 들어갔다. 특히 몰래 들어간 가게에 현금 등이 없을 경우 잠금장치를 철사로 감아놓거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려놓는 등 보란듯이 해코지를 한 뒤 도망갔다.

그러나 범인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최근 북구지역에서 살인 등 굵직굵직한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절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 상가가 절도범의 표적이 되면서 가게 주인과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입주민 고모(41)씨는 "상가에 물건을 사러 갈 때마다 '이 가게, 저 가게가 털렸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집에 가는 길에 도로 양 옆으로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은데, 혹시 차 안에 범인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버릇까지 생겼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대 원어민 '영어캠프' 인기 전남대가 원어민들을 강사로 초청, 해외연수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영어캠프'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영어캠프는 오는 8월7일까지 공대 강의실에서 3주간 진행되며 155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수뢰' 광주시장 비서 체포

광주지검, IT사업 관련 업자에 2억 받은 혐의

검찰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IT사업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 시장 비서관을 전격 체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20일 광주시청 비서실 소속 직원 A(별정직 5급)씨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A씨 등 관련자 4~5명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시가 최근 수년간 추진해온 '유-페이먼트(U-Payment)'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A씨와 업자 등 2명을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월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유-페이먼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사례금으로 업자와 광주 모 대학 교수 C씨 등 2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유-페이먼트' 사업과정 개입 및 단독 범행 등의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가 현 시장의 비서관이고, 시의 사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위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오랜 기간 진행된 데다 뇌물 액수도 커 신중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A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사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유-페이먼트 사업은?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광주시의 '유-페이먼트(U-payment) 사업'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해 공공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은 물론, 마트와 백화점 등 민간분야 거래를 현금 없이 하나의 카드로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전자금융 선진도시'를 표방하며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카드 및 단말기 보급, 정산센터 등이 필요하며, 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공모를 실시, 글로벌에스티엔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자본금 100억원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대출 200억원을 포함해 모두 300억 원의 기반구축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참여 업체가 출연을 꺼리면서 현재 자본금의 60% 수준인 57억8천만원만 마련돼 자본금 확보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과정에서 카드업체마저 참여를 포기했으며, 자본 출연 업체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사업 전체가 표류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외 벌목사업 투자 미끼 수십억 가로챈 2명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해외 벌목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이모(48)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모(52)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시 구로구에 불법 다단계업체를 설립한 뒤 투자자 김모(88)씨 등 4천914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22억7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흥군청 공무원 수뢰 조사

고흥경찰은 20일 청사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고흥군청 소속 공무원 A(7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군청 민원실 주변에서 공사 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다가 행정안전부 암행감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

"예약금 줄게" 유인 식당 금품 훔쳐

쌍나팔

○…"예약금을 주겠다"며 식당 주인을 밖으로 불러낸 뒤 식당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경찰서행.

○…여수경찰은 20일 식당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몰래 가져간 이모(3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이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여수시 문수동의 한 식당에 전화를 걸어 "며칠 뒤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해달라. 선금을 주겠다"며 주인을 밖으로 불러낸 뒤 식당이 빈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손가방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30회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조사결과 이씨는 여수와 순천, 광양지역 등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식당을 털었으며 범행 과정에서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오기도 했다고.

/여수=박양규기자 ykpark@